

「今年又三十東坡出」의 解釋巧

洪 瑀 欽

I

어떤 사실을 연구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대상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중요하지마는 그 수집한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정리해석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운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여 모은 귀중한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해석하여 연구 주제와 결부시키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기면 기대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 연구 결과는 학문세계에 보탬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진실을 왜곡시키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끼치고 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언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今年又三十東坡出」이란 한 구절의 해석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한 구절의 내용은 고려 문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고려 문학사를 논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즐겨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구절을 인용하여 고려 중기 이후에는 「해마다 30명의 동파가 나왔다」고 주장한 글을 쓴 분도 있고 그 글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이도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몇 가지 연구물에서 이 「今年又三十東坡出」에 관한 해석을 조사해 보면 「今年又三十東坡出」이란 말을 쓴 원작자의 원문 문맥의 본의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글을 쓴 이의 일시적 착각이나 선입관에 의한 가벼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으나 그 오해가 풀리지 아니하고 누적되어 나간다면 엉뚱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 한 구절의 풀이는 이 한 구절의 자구해석의 잘잘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려 문학사 전체의 맥락을 더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한 구절의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해마다 쏟아져 나온 30명의 과거합격자들 즉 당대의 고려 동파들이 오해의 그늘에서 영원히 그들의 분명한 얼굴을 들어 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고려 문학사의 체계적인 해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본고는 「今年又三十東坡出」의 출처와 그에 관한 제가의 해석, 그리고 그 구절해석의 잘못이 어떤 역사해

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

「今年又三十東坡出」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한 말이다. 이규보는 전이지(全履之)에게 문장의 원리를 논하는 편지의 답장을 썼는데 그 편지에서 이 말을 발설한 적이 있다.

「세상의 학자들이 처음에는 모두 과거문장을 익힘으로 해서 풍월시(風月詩) 짓기를 일삼을만한 겨를이 없었다. 과거에 합격한 뒤에야 바야흐로 풍월시 익히기를 즐겨했는데 특별히 동파(東坡)의 시를 읽기를 즐겨했다. 그러므로 매년 과거합격의 방문(榜文)이 나붙은 다음에 사람들은 『금년에 또 30사람의 동파가 나왔다』고 했다.」¹⁾

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문장과 풍월시의 관계이다. 과거문장과 풍월시는 상호 보완적이거나 부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립적인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문장을 익힐려면 풍월시를 일삼아 수련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풍월시는 그 체제나 내용이 과거문보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통과하기 위하여 과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풍월시를 일삼았다가는 과거에 낙방하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풍월시를 익힐려는 사람은 과거를 포기하고 풍월시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합격한 뒤에 다시 풍월시를 공부해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에 고려 중기 이후 청년들의 고민이 있었다. 출세를 하기 위해 과거시험답안을 작성하는 이외에는 아무 데도 쓸모 없는 과거문장을 억지로 익혀야 하느냐, 출세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에서 새로 들어온 고문체의 유행을 따라 자유분방한 풍월시를 배워야 하느냐,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만 둘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과거에 합격하고 난 뒤에 매력적인 풍월시를 익혔던 것이다. 출세한 뒤에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 과거문에 대립되는 풍월시의 모범 작가가 바로 저 송(宋)의 소식(蘇軾, 1036~1101) 즉 동파였던 것이다. 동파는 사육변려체(四六駢麗體)의 유태주의 문장을 배격한 고문부흥운동(古文復興運動)의 기수로서 호방청광(豪放淸曠)한 문학활동을 전개한 사람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문학창작에 있

1) 《東國李相國集》卷二十六, 〈答全履之論文書〉: 「且世之學者, 初習場屋科舉之文, 不暇事風月, 及得科第, 然後方學爲詩, 則又者讀東坡詩, 故每歲榜出之後, 人人以爲今年又三十東坡出矣。」

·어서 전통적인 정서의 범주에 안주하기를 거부했으며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기를 싫어했던 사람이다. 천지의 삼라만상을 자기영혼의 도가니에 용해시켜 기괴괴이 형형색색의 예술작품을 자유자재로 창조한 거장이었다.²⁾ 그로 인해서 그의 명성은 천하를 진동시켰고 문학예술을 이해하고 옹호하려는 젊은이들의 동경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파문학의 이러한 특색은 철저한 내용과 형식의 구속을 받아야만 하는 고려의 과거문과는 입장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과거문에 대해서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군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동파류의 고문풍에 맛을 들여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은 과거를 보기 위한 공령시(功令詩) 따위는 안중에 두지를 아니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시는 다만 어린 아이들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근세에 사람을 선발함이 聲律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때때로 어린 아이들이라도 다 능히 甲科·乙科에 급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결박학한 문사들이 많이 버림을 받기 때문에 朝野가 탄식하고 원통해 하는 바이다.³⁾」

는 그 때의 정황을 잘 알려 주고 있다. 여기서 성율이란 과거문장의 거추장스러운 형식을 말한다. 押韻·平仄·行數·構成 등 고려 과거문이 가진 독특한 규율, 어릴 때부터 과거에 뜻을 둔 사람은 그 정해진 규율에 내용을 얽어 맞추는 문장연습을 무한히 반복해야 했다. 그 규율의 틀에 교묘한 글자만 채워 넣을 줄 알면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도 합격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소동파류의 고문 진미를 깨달은 경결박학한 문사들은 그러한 쓸모 없는 격식의 과거문을 싫어하여 그것을 수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과거에 합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천성이 본래 曠達하여 大道 문기를 좋아하였을 뿐, 세속의 應用文字는 즐겨워하지 않았다. 다만 어릴 때는 父兄의 강요에 의하여 응용문자의 연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⁴⁾」

는 광달한 문사인 林春의 고백이다. 그는 어릴 때 부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여 세속의 응용문자 즉 과거문을 익혔을 뿐이었다. 힘이 들자 그러한 응용문자는 「俳優들의 이야기⁵⁾에 불과하며 大道에 어긋나는 것임을 깨닫고

2) 拙著《蘇東坡文學之研究》第五章,〈東坡之創作特性〉參照.

3) 林春,《河西集》卷四,〈與黃甫若水書〉

4) 위의 책,〈與趙亦樂書〉

5) 위의 책,〈與趙亦樂〉

응용문자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옛날부터 과거에 곤란을 당한 사람은 드디어 골몰한 지경에 이름이 많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더우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두번이나 과거시험을 치루었으나 다 뻘어지고 말았다. 그 뒤 어려움을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금 세 번째 치루어 겨우 합격을 했다. 그러나 머리가 하얗게 세었으며 또 병든 몸이 되었으니 막막할 뿐이다.」⁶⁾

는 바로 일찍 응용문자를 즐겨하지 아니고 소동파류 문학의 風骨을 체득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⁷⁾ 임춘은 이와 같이 고문과 과거문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불우한 한 평생을 보냈던 것이다. 그의 친구 吳世才도 韓愈·柳宗元·蘇軾 流의 古文을 좋아하다가 끝내 과거에 낙방하여 관 위에 오르지 못하고 東京에서 궁곤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며⁸⁾, 천재 문인 이규보도 풍월시를 즐기다가 여러 번이나 과거낙방의 고배를 마셨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를 할려는 사람들은 응용문자인 과거문 즉 功命詩를 수련해야지 東坡流의 古文風인 風月詩를 즐겨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는 동파가 아무리 좋아도 동파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다만 과거에 합격하여 자유스러운 문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동파를 익히고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규보가 말한 30인의 東坡는 이미 동파시문을 배워 벌써 동파가 된 동파가 아니라 과거에 합격하였으니 그 까다로운 형식의 과거시험 구속에서 벗어나 이제부터 마음 놓고 동파를 익히고 즐겨워 할 30인의 미래 동파였던 것이다. 본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다음은 이 아직 동파시문 공부를 하지 못하여 양양하던 고시합격자들, 이제 막 마음 놓고 동파시문을 익혀 볼려는 이 당시 30인의 「엘리트」들에 대해 제자들이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III

이규보가 지적한 「今年又三十東坡出」이란 말을 우리 문학사에 제일 처음

6) 위의 책, 위의 글.

7) 위의 책, 〈與眉叟論東坡文書〉

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三十七, 〈與德全哀詞〉: 「先生度終不爲世用, 於有長往之志, …卒以困窮死。」

으로 인용한 사람은 金台俊이었던 것 같다. 그는 《朝鮮漢文學史》 고려편 제 5장 <이규보와 그의 후진>에서 동파문학이 고려문단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方今爲詩者，尤嗜讀東坡之文，故每歲榜出之後，人人以爲今年又三十東坡出」.

(바야흐로 지금 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더우기 동파의 글을 좋아하고 있다. 때문에 매년 과거 합격의 방문이 나붙은 뒤에 사람들은 『금년에 또 30명의 동파가 나왔다』고 한다.)

를 적취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증하기 위하여 林春이 李仁老에게 준 편지

「僕觀近世東坡之文，大行於時。」⁹⁾

(나는 보전대 근세에 동파의 문학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와 崔滋 《補閒集》의

「近世尙東坡，蓋愛其氣韻豪邁，意深言富，用事該博，庶其效得其體也。」

(근세에 동파를 숭상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 기운이 호매하고 뜻이 깊고 말이 풍부하며 용사가 해박함을 좋아하여 거의 그 문체를 터득한 것 같다.)

「觀文順公詩，無四五字奪東坡語，其豪邁之氣，富贍之體，直與東坡吻合…」

(문순공(이규보)의 시를 보면 한 수 중 4, 5字도 동파 시의 말을 빌려 온 것이 없으나 그 호매한 기상과 부심한 문체는 곧장 동파와 더불어 꼭 들어 맞는다.)

등을 들고 있다. 아마 이 몇 대목의 인용문과 이에 관한 김태준의 해설문인

「다음은 그의 詩文에 대한 氣風이니 먼저 당시의 風尙을 보면 從來의 漢文唐詩熱이 아직도 냉각하기 前에 다시 東坡熱을 맞은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文選의 시대는 지나가고 東坡의 時代가 왔다고 할 것이다」

등을 읽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고려 중기 이후 문단은 朝野의 구별없이 완전히 소동파 문학을 배우고 익힘으로 유행을 삼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 생각해 볼 여지없이 과거문에도 동파류의 시문을 출제했을 것으로 추측함과 아울러

「今年又三十東坡出」

9) 《河西集》卷四、〈與眉叟論東坡集〉

의 東坡는 이미 동파 문학을 공부하여 그것으로 동파와 같은 대문장가가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과거에도 합격한 30명의 청년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김태준의 이 인용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김태준이 이규보가 지적하고자 하는 뜻을 완전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문구를 애매하게 摘取해 온 것이다.

「且世之學者，初習場屋科舉之文，不暇使風月，及得科第，然後方學爲詩，則尤嗜讀東坡詩，故每歲榜出之後，人人以爲今年又三十東坡出矣。」

(또 세상의 학자들이 처음에는 과거문장을 익혀야 했기 때문에 風月詩를 배울 여가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야 바야흐로 詩를 배울 수 있었는데 특별히 東坡詩를 즐겨 읽었다. 때문에 매년 과거급제의 방문이 나붙은 다음에 사람들은 급년에도 또 東坡詩를 시작하여 공부할 30명이 나왔다.)

를 읽어 보면 김태준의 인용문이 이규보의 완전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태준의 인용문은 독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꼭 알맞다. 이규보 설명의 중요한 뜻은 김태준이 인용한 「方今學~東坡出矣」와 「·」친 부분을 합쳐야 완전한 뜻을 갖는 문장이 된다. 「·」친 부분을 제외해 버리고 김태준이 인용한 부분만 적취해 오면 이규보의 원래 뜻과는 완전히 반대 의미의 문장이 되고 말 위험이 있다. 여기서부터 아직 동파를 공부해 보지도 아니한 30명의 과거합격자들이 이미 완전한 동파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그것은 아직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김태준 인용문 중의 誤字 문제이다. 이규보의 현전 《東國李相國集》 원문에는 「方今爲詩」가 아니고 「方學爲詩」로 되어 있음이 그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誤字임에 틀림이 없다. 「배울려고」(學)라는 시간적으로 未來를 나타내고 있는 뜻을 「지금」(今)으로 고침으로 현재인 양 오인하게 해 놓았으니 그 본 뜻을 어긋나게 함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음은 陶南 趙潤濟 先生의 說이다. 陶南先生은 《韓國文學史》 第五章 第六節 〈漢文學의 爛熟〉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잠깐 이 시대의 一般文學的 傾向에 對하여 言及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 되겠거니와, 高麗初葉에는 科學의 學科目으로 불지라도 아직 新羅와 별다름없이 古文을 배웠더니 中葉에 이르러서는 점점 唐宋의 文, 그 中에도 東坡의 文이 一般에 愛讀되었었다. 金富弼과 金富徹의 兄弟가 그 이름을 蘇軾 蘇轍의 兄弟의 이름에서 剽用하였다는 것으로 불지라도 벌써 그 시대에 相當히 三蘇의 文章이 文學者들 가운데 欽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高宗朝가 되면 확실히 東坡

의 熱이 一般에 넘쳐진듯 하다.¹⁰⁾

이 대목을 꼼꼼히 읽어 보면 「新羅에서부터 高麗 初葉까지의 科學 學科目은 古文이었다. 高麗 中葉에 이르러서는 唐·宋 文學中 특히 東坡의 文이 一般에 愛讀되었고 高宗朝에 이르러 東坡熱은 한층 심화되었다.」와 같이 그 요지를 간추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문은 新羅때 과거가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新羅에서 高麗初葉까지 과거 교과목으로 채택된 「古文」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며, 셋째는 과거 교과목으로 사용된 그 「古文」과 唐宋의 文 특히 東坡의 文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新羅때는 아직 과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거기 대해서는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고려의 과거 교과목으로 「古文」이 채택되었다는 데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여기서의 「古文」이 우리의 「古代小說」이란 말과 같이 막연히 「옛날의 글」이란 뜻으로 쓰였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漢文學史에 있어서 「駢文」에 대립되는 「古文」으로서의 「古文」이라면 陶南先生의 이 術語使用은 우리 문학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아 전하고 있는 新羅 漢文學 資料에 의해 보면 신라 말기에 있어서 유행한 漢文體는 古文體가 아니라 주로 駢文體였으며,¹¹⁾ 高麗 光宗때부터 실시한 과거 제도에 응용된 科學文도 古文體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駢文體에 가까웠던 것이기 때문이다.¹²⁾ 고려가 六朝나 唐末 五代 駢儷風의 浮虛綺縟한 文風을 숭상하다가 國家存亡의 위기에 서게 되고 그 결과 武臣亂을 야기했던 역사적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駢文風潮와 科學文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것을 배격하고 새로운 文學風潮를 건립하기 위해 수용한 것이 바로 唐宋古文 즉 東坡流의 古文이었음은 위에서도 지적한 바이다. 위의 陶南先生 說은 이러한 高麗漢文學思潮의 流變現象을 意中에 두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高麗文學史에 있어서 唐宋古文, 좁게는 東坡文學의 기능과 작용을 모호하게 했으며, 後人들이 深刻한 誤解에 빠질 소지를 마련해 두었다. 陶南先生은 위와 같은 다소 애매한 古文觀 乃至 東坡觀에서 계속 다음과 같은 李奎報의 〈答全履之論文書〉를 인용하고 있다.

「方今爲詩者，尤嗜讀東坡之文，故每歲榜出之後，人人以爲今年又三十東坡出矣—

10) 《韓國文學史》(東國文化社) p. 111.

11) 崔致遠의 文章을 그 뚜렷한 예로 들 수 있다.

12) 金台俊, 《朝鮮漢文學史》p. 45, 〈科學制度和 雙冀·王融〉참조.

方今 詩를 짓는 者는 더우기 東坡의 글을 嗜讀하기 때문에 每歲 榜이 나온 뒤에 는 사람사람이 今年에 또 三十의 東坡가 나왔다 한다.]¹³⁾

이 인용문을 읽어 보면 陶南先生이 이 인용대문을 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原文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金台俊이 《朝鮮漢文學史》에서 인용한 내용을 再引用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切取한 部分이 同一하고 「方學」의 「學」을 誤字인 「學」으로 고쳐 인용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今年又三十東坡出」의 「東坡」에 관한 해석도 金台俊의 해석과 같이 장차 東坡文學을 공부하려고 하는 30사람이 아니라 이미 東坡의 文章을 익혀 東坡의 경지에 도달한 30人的 東坡라는 식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그 얼마나 東坡의 文이 一般에 愛讀되었던 것을 能히 알 수 있다.」라는 陶南先生의 解說은 淺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매우 막연한 결론이 되고 말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 오류는 반드시 수정되지 아니하면 안될 내용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은 「今年又三十東坡出」에 관한 趙東一先生의 學說이다. 趙東一先生은 그의 《韓國文學思想史試論》〈第2期 13~16世紀〉〈1. 李奎報〉條에서

「문학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이규보의 주장은 분명히 새롭고 파격적인 것이어서 당시 사람들의 글짓는 습성과는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쓰는 것은 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정한 격식을 따르고, 고사를 늘어 놓으면서 글을 썼다. 과거를 보는데서는 蘇東坡詩를 흉내 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어 『해마다 榜이 붙고 난 후에 사람들은 올해에도 30명의 東坡가 나왔다』고 한다는 시대였다. 이규보는 이러한 풍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¹⁴⁾

와 같은 見解를 밝히고 있다. 趙先生의 이 논의는 앞에서 살펴 본 金台俊·趙潤濟 兩先生의 논의보다 한층 더 적극적이며 선명한 것 같다. 「해마다~東坡가 나왔다」 앞에 「과거를 보는데서는 蘇東坡詩를 흉내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어」를 첨가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더우기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東坡詩를 흉내내어 매년 과거에 합격한 30명과 격식을 따르고 고사를 늘어 놓으면서 글을 쓴 당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독창적인 문학을 주장하여 새롭고 파격적인 글을 지은 李奎報와 대립시킨 점이다. 따라서 이규보는

13) 《韓國文學史》 p. 112.

14) 《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產業社) p. 81.

동파시를 배워 그것으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과 격식을 따르고 고사를 늘여 놓으면서 글을 쓴 사람들의 문학풍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임춘, 이규보 등의 몇 가지 당대 자료와 기타 논증에 의거해 보면¹⁵⁾ 趙先生의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소동파는 無形式의 形式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격식(押韻, 平仄, 字數, 對句, 行數等)을 따르거나 고사를 늘여 놓은 문체 즉 駢文流의 文學을 극력 배격한 古文復興運動의 선봉자였는데 철저한 격식과 고사를 늘여 놓아야 하는 것으로 주축을 삼은 고려 과거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찌서 반대로 그러한 소동파시를 흉내 내었을까.

둘째, 이규보는 일찌기 소동파류의 풍월시 짓기를 즐기다가 여러 번이나 과거에 낙방했으며, 또 그 고문이론을 받아들여 독창적이고 새롭고 파격적인 글을 지어야 한다고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¹⁶⁾ 그러한 소동파 애호가인 왜 소동파시를 흉내내어 과거에 합격하는 시대 풍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을까.

여기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들어 맞지 아니한다. 아마 이규보의 「今年又三十東坡出」에 대한 前後文脈 관계를 살피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지적한 金台俊·趙潤濟 兩 先生의 說을 그대로 따르면서 오히려 그 謬 謬부분을 한층 더 부각시킨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동파문학에 입문도 하지 아니한 30명의 과거합격자들을 완전한 동파로 만들어 놓은 결과를 초래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급제한 30명이 이미 동파시를 배우고 익히고 흉내내어 과거에 합격을 하였든지 아니면 과거에 합격한 다음 동파시를 배울려고 했든지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체 高麗漢文學思潮의 대립 갈등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15) 拙稿 〈李奎報의 文體革新에 대한 探討〉 p. 26. 〈Ⅱ, 無形式의 形式〉(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論叢》第2.3輯, 1982) 參照.

16) 嶺南. 〈三, 文體革新에 대한 理論의 骨格〉

IV

이상 「今年又三十東坡出」이란 句의 出處와 그 本來의 意味를 밝힌 다음 그에 관한 諸家의 解釋을 살펴 보았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년 나온 30명의 東坡는 고려 때 과거문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한 후 과거문의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豪邁淸曠한 東坡詩文 공부를 시작할려고 한 사람들이었다.

2. 그러나 金台俊·趙潤濟·趙東一 諸家は 이들 30명의 과거합격자를 이미 東坡의 詩文을 공부하여 그 東坡詩文으로 과거에 합격한 30명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3. 東坡는 駢儷文風을 배격한 古文復興運動의 선봉자였으며 高麗의 科擧文은 주로 駢儷文風의 格式을 취하였던 것인데, 東坡詩文을 배워 科擧에 승격한 30명의 동파와 같은 문인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 중엽의 文學思潮를 사실과는 반대로 뒤바꾸어 놓는 해석이 된다.

4. 이 한 句에 대한 해석은 고려 漢文學思潮의 갈등, 대립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 잡혀지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다.